



투자에 대한 오해들

글 | 이재엽 재무설계사 아이해피아이(주) www.ihappyi.co.kr

투자자가 쉽게 범하는 실수

최근 국내의 주식시장이 크게 변동하여 투자자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하였습니다.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아마도 밤잠을 편히 주무시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네요.

언론에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실제 시장은 어떻게 움직일 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3년에서 5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하면서도 단 일주일의 투자 결과로 기존의 신념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물건을 사고 파는 데에는 항상 판매하는 자와 사려는 자들 사이에 여러가지 심리가 작용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를 하려면 흔들리는 않는 신념과 함께 여유로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심리 때

문에 주식을 싸게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비싸게 팔 수도 있는 것입니다. 워렌버핏도 바로 이러한 비 이성적인 투자자의 심리를 잘 파악한 투자자입니다. 그는 투자를 차익거래라고 말합니다. 차익거래란 위험이 없이 수익을 얻는 투자 기법을 말하는 것인데, 심지어 주식투자에서도 차익거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위험한 주식투자를 워렌버핏과 같은 대가는 차익거래라고 할까요?

한번 살펴봅시다.

오해 1 - 모든 투자자는 합리적이다?

현대 포트폴리오의 근간은 모든 시장은 정보가 모두 공개되어있고 투자자는 모두 합리적일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따라서 차익이란 있을 수 없고 그만한 위험을 부담하여야만 그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투자자는 효율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론을 전개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비합리적인 투자자가 무수히 존재하고, 따라서 틈새를 찾아 노력하는 사람은 쉽게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투자 수단이 없으므로 지나치고 있는데도 투자할 마음이 없다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오해 2 - 시장이 하락하면 모두가 다 손해다?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면서 매일 0.1%씩 오르기만 바라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최근의 상황을 보면 투자자는 오로지 오르는 것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가가 하락할 때 아주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잘 생각해보세요.. 주가에 따라 기분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스트레스는 감정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고 조그마한 충격에도 시장을 비관적으로 보게 만듭니다. 만약, 투자자가 일주일, 한 달을 투자하기로 하였다면 당연히 주가 하락에 신경을 써야 하지만 장기 투자자, 특히 적립식 투자자의 경우에는 오히려 주가 상승이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100만 원의 투자자금으로 주식을 산다고 가정합니다. 한 사람(갑)은 100만 원을 초기에 투자하고, 다른 사람(을)은 100만 원을 20만 원씩 다섯 번으로 쪼개어 매 시점마다 나누어 투자합니다.

주가는 하락하였다가 다시 올라 500선이 되면 갑의 경우 이익이 한 폰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그 동안 주가 하락으로 40% 가까운 손해로(실제 손해는 아니지만, 그 상태라면 마음이 무지 아팠을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보냈겠죠. 이에 반해 을은 만기시에 무려 23%나 높은 수익을 얻게 됩니다.(총 1,233주를 샀고, 평가금액은 616,000원, 따라서 23.3%의 이익) 매번 나누어 투자함으로써 주가 하락기에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가가 500에서 600,700으로 상승하였다가 하락

하여 500으로 끝나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 갑은 손해가 없이 그저 100만 원을 회수하지만, 을의 경우에는 87만 원을 찾게 됩니다. 투자 후 이익이 발생하여 좋아했지만 찾는 시점에 주가가 다시 제자리에 왔기 때문에 그 동안의 수익뿐만 아니라 높은 가격에 산 주식에서도 손해가 발생한 것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시장 상황일까? 적립식 투자자의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시장이 긍정적이라고 판단되면 단기적인 하락은 오히려 투자의 좋은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주가 조정기에 목돈을 가진 투자자라면 위에서처럼 미리 돈을 나누어 분할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적립식 방식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주가가 하락했을 때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되겠죠.

오해3 - 낮을 때 투자하는 것이 좋다?

물론 낮을 때 투자해서 높을 때 돈을 찾으면 제일 좋겠지만, 문제는 낮을 때가 언제이고 높을 때가 언제인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딜레마와도 비슷한데, 너무 높은 목표를 잡으면 투자할 시점을 찾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5년 중 상승기 10일만 투자를 하지 못하면 5년 수익률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만약, 5년 중에 한 번만 잘못된 판단을 하여도 수익률의 대부분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통계적으로도 적립투자의 경우 저점에 주식을 사거나 고점에 주식을 사거나 결과는 거의 같게 나오고 있습니다. 장기투자로 승부를 내려면 정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비법입니다. 큰 부자가 된 사람일수록 단기 시장 예측을 하지 못합니다.

워렌버핏 또한 단기적으로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처음 하는 사람들조차 애널리스트 뽑치는 시장 예측을 하고 있으니..... 큰 장사를 하려면 사람을 사고 작은 장사를 하려면 물건을 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전략을 수립하고 그 길로 곧장 나아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전략을 계속 행동으로 옮기느냐에 있겠죠.

오해4 - 돈이 있어야 투자하지?

투자에 약간의 종자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많은 돈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얼마 전 대전지역에 2천만 원을 투자해 작은 아파트를 산 고객이 있었습니다. 3년 정도 지나니 전세 보증금이 2천5백만 원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아파트 가격은 4천만 원이 되었구요. 원금 한 푼 없이 2천만 원을 번 셈이죠. 반드시 수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수 억원의 이득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월 10만 원의 투자로 12%로 꾸준히 한다면 20년 후 8천6백만 원이 생깁니다. 어떻습니까? 하고 싶으시죠?

오해 5 - 열심히 살면 된다?

맞는 말이지만 그냥 주어진 일만 열심히 해서는 안됩니다.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더 열정적으로 해야 하고, 재테크도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만약 정기적금에 매월 100만 원씩 20년동안 투자한다고

하면, 물론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20년 후 실질 가치는 2억 4천 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물가가 3%로 오르고 적금의 세후 이자도 3%수준이기 때문이다) 2억 4천만 원으로 겨우 10년 살기도 어렵습니다. 노후 준비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12%로 20년간 100만 원씩 투자하면 8억 6천 만원이 된다. 3%의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4억 7천만 원의 가치를 지닙니다. 30년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투자처는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만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도 지금부터 적은 돈이라도 좋은 투자처를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울러 회사에서 일을 할 때에는 최선을 다해 고객에게 최고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라 말로 가장 중요한 재테크의 한 부분으로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제대로 투자하는 합리적인 사람이니까요.

